

우리나라 로컬푸드 원칙의 인식구조와 준수실태*

이관률** · 송주연*** · 허남혁****

The perception and compliance of local food principles in Korea*

Lee, Kwan-Ryul** · Song, Ju-Youn*** · Hur, Nam-Hyuk****

요약 : 본 연구의 목적은 최근 사회적으로 큰 흐름으로 자리잡고 있는 로컬푸드 원칙에 대한 인식도와 준수도를 실증적으로 규명하는 것이다. 본 연구의 주요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로컬푸드 인식도에서는 신뢰관계, 지역생산·지역소비가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났고, 상대적으로 친환경성의 중요도는 낮게 나타났다. 이는 종사자와 전문가에서 통계적 차이를 나타내지 않는다. 따라서 로컬푸드 개념에서는 공간적 측면과 사회적 측면의 구성요소가 모두 중요하다. 둘째, 로컬푸드 준수도에서는 신뢰관계와 유통단계의 축소는 비교적 잘 지켜지는 반면, 친환경성과 이동거리는 상대적으로 잘 지켜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준수도의 경우 종사자와 전문가의 인식차이는 이동거리 축소에서만 나타나지 않고, 그 외 4개 요소에는 통계적 차이가 나타났다. 셋째, 로컬푸드의 인식도와 준수도의 차이를 살펴보면, 친환경성과 신뢰관계, 그리고 유통단계 축소 등의 사회적 측면은 인식도와 준수도의 차이가 크지 않은 반면, 공간적 측면의 이동거리 축소와 지역생산·지역소비는 인식도와 준수도의 차이가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어 : 로컬푸드, 개념적 구성요소, 사회적 측면, 공간적 측면, 인식도, 준수도

Abstract :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illuminating positively the perception and compliance rate of local food principles in Korea.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in terms of the perception rate, social trust and local production/consumption are the most important components rather than eco-friendliness. This means the importance of both spatial and social aspects of local food concept. Second, in terms of the compliance rate, social trust and shortened food chain are well complied, rather than eco-friendliness and shortened food miles. Third, in terms of the difference between perception and compliance rate, the social aspects such as eco-friendliness, social trust, and shortened food chain has shown relatively smaller difference than the spatial aspects such as shortened food miles and local production/consumption.

Key Words : local food, conceptual components, social aspects, spatial aspects, perception rate, compliance rate

1. 서론

산업화된 현대 사회에서 제기되는 대부분의 먹거리 문제는 먹거리를 효율성의 관점에서 판단하기 때문에 발생한다. 대량생산체제에서 먹거리는 효율성을 기준으로 생산, 가공, 유통되는 상품에 지나지 않는다. 산업화된 먹거리 상품의 일례로 햄버거를 꼽을 수 있다. 과거에는 충분한 영양소를 갖춘 편리한 먹거리로 이해되었지만, 지금 우리는 햄버거를 대표적인 정크푸드로 인식하고 있다. 심지어 일각에서는 햄버거를 먹거리가 아니라는 극단적인 견해를 제시하기도 한다. 이러한 인식 변화는 글로벌 푸드(global food)라 불리는 산

업화된 먹거리를 둘러싸고 건강과 직결된 안전성에 대한 문제제기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먹거리 안전성뿐만이 아니다. 대량으로 생산되는 산업화된 먹거리의 농경 방식은 환경적인 영향을 가져오고, 지역의 농업기반을 약화시켜 지역 공동화 현상을 야기하며, 또 생산이 지역 수요가 아니라 시장 논리에 의해 좌우되기 때문에 지역의 먹거리 보장성(community food security)을 위협하기도 한다(김종덕, 2008).

이러한 상황에서 1970년대부터 유럽, 미국, 일본 등을 중심으로 세계화된 먹거리 공급체계(global food system)를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먹거리 체계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그 대표적인 개

* 본 논문은 한국농촌사회학회 정기학술대회(2013.2.22)에서 발표된 원고를 수정·보완한 것이다.

** 충남발전연구원 책임연구원(Senior Researcher, Chungnam Development Institute)(krlee@cdi.re.kr)

*** 충남발전연구원 연구원(Researcher, Chungnam Development Institute)(jysong@cdi.re.kr)

**** 대구대학교 지리교육과 박사수료(Ph.D. Candidate in Department of Geography Education, Daegu University)(hurnh@naver.com)

념이 바로 로컬푸드(local food)이다. 로컬푸드는 생산과 소비가 점점 더 글로벌화되고 있는 먹거리 체계 하에서 점차 잃어버리고 있는 먹거리의 가치와 맥락을 되찾고자 하는 새로운 대안으로 등장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로컬푸드는 일정한 공간적 범위 내에서 신선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공급하는 메커니즘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로컬푸드는 짧은 먹거리 공급사슬(short food supply chain)을 전제로 하고 있는데(허남혁 등, 2011), 이것은 단순히 안전하기만 한 먹거리와 중요한 차이점이다. 만일 안전한 먹거리 확보에만 그친다면 유기농 식품의 수입증가나 대기업의 친환경 농산물 시장 장악 등과 같이 로컬푸드의 의미가 상당히 퇴색될 수 있기 때문이다(김자경, 2010). 이러한 로컬푸드는 운동적인 차원에서 각 국가가 처한 사회·경제적 요인에 따라 미국과 영국의 로컬푸드, 일본의 지산지소(地產地消), 이탈리아와 프랑스의 짧은 유통(short chain) 등 다양한 형태로 일어났고(허남혁 등, 2011), 2000년대 들어서는 각국 정부와 지자체의 다양한 지원정책들로 정착단계에 접어들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에서는 로컬푸드가 실현되기에 그리 좋지 않은 상황이다. 우리나라는 가족소농 중심의 집약적 농업생산이라는 특징을 보이고 있으며, 지역마다 특화된 작목을 중심으로 수도권을 공략하는 매우 극심한 중앙집중적 먹거리 유통구조를 형성하고 있고, 또 중앙정부가 농산물을 수입하고 첨단 공산품을 수출하려는 무역정책을 유지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로컬푸드의 기반이 미약한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무적으로 2000년대 중반 이후 우리나라에서도 로컬푸드에 대한 학문적·대중적 관심이 증가하기 시작하였고, 뿐만 아니라 로컬푸드 관련 시장이 성장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에 본 연구의 목적은 최근 성장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로컬푸드 상황에서 참여자들의 로컬푸드 원칙에 대한 인식도와 중요도를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이론적 측면에서 로컬푸드가 지향하는 본질적인 개념을 논의하고, 이를 바탕으로 실증적인 측면에서 로컬푸드의 인지도와 준수도를 분석한다. 본 연구의 결과는 향후 로컬푸드 정책이 어떠한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하는지

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한다는 측면에서 의의를 지닌다.

2. 이론적 논의

1) 로컬푸드의 개념적 구성

로컬푸드는 유기농과 달리 아직까지 보편화되고 법률화된 개념이 아니다. 또한 ‘로컬(local)’이라는 상대적인 공간개념과 ‘푸드(food)’라는 영어의 포괄적인 의미(농산물, 식재료, 식량, 조리된 음식, 가공된 식품 등) 때문에 로컬푸드를 정의한다는 것이 쉽지 않다. 뿐만 아니라 로컬푸드라는 새로운 현상에 대해 사회적으로 다양한 집단들이 자신들의 이해관계에 기초하여 현상을 해석하고 이끌어가기도 한다(허남혁, 2011). 따라서 로컬푸드에 관한 정의는 국가별, 주체별, 연구자별로 다양하게 존재한다.

로컬푸드의 정의가 다양함에도 불구하고, 그 개념적 요소는 크게 두 가지로 정리될 수 있다. 첫째, 공간적 측면에서의 로컬푸드로, 물리적 거리에 기반하여 ‘로컬(local)’적 지역성을 담보하는 개념이다. 공간적 측면에서 진행된 로컬푸드 논의는 일본의 지산지소(地產地消) 운동과 같이 지역에서 생산된 먹거리를 지역에서 소비하는 것을 비롯하여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물리적 이동거리 단축 등을 강조해왔다. 여기에서 빠질 수 없는 논의 중에 하나가 바로 ‘로컬(local)’의 공간적 범위를 어디까지 볼 것인가라는 점이다. 로컬푸드 논의가 활발한 영국에서는 생산자나 지자체가 기관과 제휴된 농민시장의 활동영역을 지원하기 위해 로컬푸드의 범위를 반경 48km(30마일) 이내, 런던과 같은 대도시에서는 반경 160km(100마일) 이내로 규정한다. 한편 미국의 경우 런던과 같이 반경 160km를 규정하기도 하지만, 유럽보다 운송시스템이 길기 때문에 실용적인 방법에서 차로 운송 24시간 이내의 거리를 로컬푸드 범위로 규정하기도 한다(장현욱, 2013; 정은미, 2011). 캐나다에서는 같은 행정구역 이내, 또는 행정구역을 넘는 경우에는 50km 이내로 규정하고 있다(CFIA, 2013). 일본에서는 하나의 단일한 규정은 존재하지 않지만, 일반적으로 동일 지자체 이내의 범위로 간주하고 있으며,

일본 정부는 동일 광역지자체 범위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에서는 로컬푸드를 50~100km 거리 내의 지역생활권역이나 인근 생활권역에서 생산·가공·유통되는 안전하고 신선한 친환경 먹거리로 이해하는 시각이 있다(농촌진흥청, 2010). 이렇듯 로컬푸드의 공간적 범위가 각국의 상황에 따라 기준이 다르긴 하지만 로컬의 공간을 규정짓는 일은 먹거리의 장거리 이동(long food miles)에 대항하는 작업이라는 점에서 공통점을 찾을 수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도 구체적으로 한국적 상황에 맞는 로컬푸드의 공간적 정의를 재확인하여 확립할 필요성이 있다.

둘째, 공간적 측면에서의 로컬푸드 개념 정의 외에 사회적 측면에서 로컬푸드를 이해하는 시각들이 있다. 이러한 사회적 측면에서의 로컬푸드는 주로 유통단계 축소와 친환경성(먹거리 안전성),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신뢰관계를 중심으로 논의되어 왔다. 유통단계 축소를 강조한 O'Hara (2011)는 로컬푸드를 생산자에서 소비자로 직거래되는 구조, 혹은 도매상을 거치지 않고 생산자와 소매상이 직접 연결된 먹거리로 바라보았다. 같은 맥락에서 Marsden *et al.*(2000)의 연구에서도 로컬푸드를 생산자와 소비자 혹은 가공자 간의 짧은 먹거리 공급사슬(short food supply chain)로 규정하고 있다. 가령, 프랑스 농림수산식품부는 2009년 짧은 유통(circuits courts) 지원정책을 발표하였는데, 여기서 짧은 유통이란 생산자에서 소비자로의 직판, 또는 간접판매의 경우에는 오직 한 단계의 중개인만을 거치는 농식품의 판매방식이라고 정의하고 있다(허남혁 등, 2011, 103-104). 한편 친환경성을 강조한 논의에서는 로컬푸드를 소비자들에게 건강하고 신선한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한 과정

으로 먹거리의 안전과 건강의 이점을 가져다주어야 한다고 본다(Trobe, 2002). 미국 USDA 보고서에서도 로컬푸드를 기존 먹거리(mainstream food)에 비해 안전성이 높고, 지역민에게 건강한 식습관을 갖게 하는 메커니즘으로 이해하고 있다(King *et al.*, 2010).

이렇듯 로컬푸드는 생산자에서 소비자에 이르기까지 가급적 적은 단계를 거치며, 소비자들이 생산과정을 알 수 있고, 종종 생산과정에 참여하기도 하며, 안전성을 보장하는 투명한 농산물 생산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생산자와 소비자 간 사회적 거리가 감소되고, 이로써 상대방을 신뢰할 수 있는 관계가 형성된다. EU의 지역위원회(EU Committee of the Regions, 2011)에 의하면, 로컬푸드는 지역에서 생산되고, 농촌발전전략에 기여하며, 그리고 소비자에게 짧은 유통구조(short chain)를 통해 지리적으로 근접되어 공급·소비되는 먹거리와 먹거리체계를 의미한다. 그리고 일본에서는 공간적 거리의 정도와 커뮤니케이션의 정도(사회적 측면)라는 두 요소를 사용하여 로컬푸드의 다양한 유형을 4개의 사분면으로 설명하기도 한다(허남혁 등, 2011). 이처럼 실제 로컬푸드의 효과에 있어서는 공간적 측면과 사회적 측면이 혼재되어 나타나게 된다.

이상을 종합해 볼 때, 로컬푸드의 개념에는 '로컬'이라는 공간적 측면과 소비자와 생산자의 관계라는 사회적 측면이 모두 포함되고 있다. 따라서 로컬푸드의 개념은 공간적 측면에서 일정한 공간적 범위, 즉 지역과 이동거리의 축소를 바탕으로 하고, 그리고 사회적 측면에서 유통단계 축소, 친환경성, 신뢰관계를 내포해야 한다(그림 1).

로컬푸드의 공간적·사회적 측면은 로컬푸드의 효과와 소비자들이 로컬푸드를 소비하는 이유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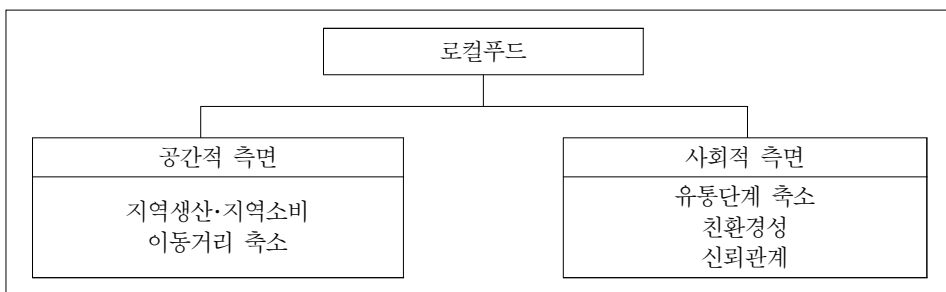


그림 1. 로컬푸드의 개념적 구성요소

도 찾을 수 있다. 일반적인 로컬푸드의 효과는 지역경제 활성화, 푸드마일 및 에너지 사용의 절감, 건강과 영양의 증진, 먹거리 안전성 제고 등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효과로 구분된다(허남혁 등, 2011). 그리고 소비자들은 보다 신선한 양질의 먹거리 소비, 지역의 생산자 지원, 먹거리 근원의 이해, 영양적으로 우수한 먹거리에 대한 수요,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먹거리 구매 및 체험의 즐거움, 보다 다양하고 저렴한 먹거리 구입 등의 이유로 로컬푸드를 소비한다(Martinez *et al.*, 2010).

그러나 여기서 한 가지 유념할 점은 로컬푸드의 공간적 측면이 과소평가되고 있다는 점이다. 사회과학계나 사회운동 진영에서는 로컬푸드의 공간적 측면보다는 사회적 측면(관계, 신뢰, 친환경성)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다. 이는 사회과학계에서 말하는 소위 '로컬의 함정(local trap)'을 회피하기 위해서라고 할 수 있다(Born and Purcell, 2006). 이는 생태적으로 건전하고 사회적으로 정의로운 것과 로컬을 등치시킬 경우 발생할 위험성을 말하는 것으로(김철규 등, 2013), 로컬이라는 공간적 스케일의 사회적 경합을 통한 사회적 구성 측면을 강조하는 것이다. 그러다보니 로컬푸드 개념 자체가 상대적이라는 점에 더하여 우리나라에서 로컬푸드의 공간적 측면을 확정지으려는 노력이 부족해지는 탓에, 로컬의 개념이 더 모호해지고 이로써 로컬푸드 운동의 실천화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로컬푸드의 공간적 측면은 글로벌 푸드에 대항하는 '지역성'을 보장할 수 있는 필수 전제조건이라는 점에서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으며, 생산자와 소비자를 중심으로 한 운동적 차원의 로컬푸드는 정책적·제도적인 뒷받침 없이 실현되기 힘들다는 점에서도 로컬푸드의 공간적 개념을 명확화하려는 사회적 노력이 필요하다. 최근 지자체에서도 로컬푸드 육성 조례가 제정되는 등 로컬푸드 정책에 관심을 지니고 있는 상황에서, 공간적 거리의 설정은 로컬푸드 정책을 보다 현실적으로 수립할 수 있는 기반이면서 정책의 실현 가능성을 높여줄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로컬푸드의 공간적 측면과 사회적 측면 모두를 고려한 균형 있는 시각에서의 연구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2) 선행연구 고찰

우리나라의 로컬푸드에 관한 연구는 2000년대 중반 이후 농업과 농촌 위기에 대한 대안으로서 등장하기 시작했다(박덕병, 2005; 김종덕, 2007; 김종덕, 2009). 이후 로컬푸드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노력이 증가하면서,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로컬푸드의 개념 정립과 문헌고찰을 통한 로컬푸드 지원체계 사례 분석(홍경완 등, 2010; 김현철 등, 2009), 운동적 측면에서 농민장터나 CSA와 같은 로컬푸드 운동 및 사업사례 현황에 대한 연구(김원동, 2008; 현혜경, 2009; 김자경, 2010; 노운배, 2010; 김철규, 2011) 등이 진행되어 왔다.

그러나 이와 같이 우리나라에서 로컬푸드에 대한 학문적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하더라도, 아직까지는 국외 연구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연구의 양과 영역이 제한적이었다. 예컨대, 로컬푸드의 개념과 원칙에 관한 기초적인 이론적 논의조차 부족한 실정이다. 이와 관련해서 외국의 연구 경향을 소개하는 것들이 대부분이었고, 또 로컬푸드 자체 보다는 로컬푸드 운동이라는 측면에서 주로 논의되어 왔다. 그중 로컬푸드의 개념에 관한 직접적인 연구로는 홍경완 등(2009)과 현혜경(2010)이 대표적이다. 홍경완 등(2009)은 로컬푸드에 대한 영국 및 유럽, 미국 등의 논의를 종합하여 거리적, 경제적, 환경적 측면에서 규정하고 있다. 이들에 의하면 로컬푸드는 짧은 유통과 거리, 생산자와 소비자의 공동 이익, 그리고 환경적으로 유익한 생산방식에 의한 것으로 규정된다. 한편 현혜경(2010)은 로컬푸드의 공간적 범위를 실증한 유일한 연구로, 제주지역을 사례로 하여 로컬푸드의 개념을 제주지역에서 생산되는 유기농 먹거리로 정의하고 있다. 그 외 로컬푸드 관련 선행연구에서는 로컬푸드의 중요성에 대한 규범적 연구, 로컬푸드와 지역운동에 관한 실천적 연구가 중심을 이루고 있다.

반면 외국의 경우 로컬푸드에 대한 연구가 매우 다양한 형태로 확대되고 있다. 단순히 로컬푸드가 무엇이라는 개념적 논의(Holt and Amilien, 2007) 뿐만 아니라 로컬푸드의 시장 형태(Martinez *et al.*, 2010; Low and Vogel, 2011; O'Hara, 2011), 그리고 로컬푸드와 지역화(localization)(Brunori, 2007; Feagan, 2007; Baker, 2011) 등 연구 영역

이 매우 다양화되고 있다. 외국의 경우, 비록 로컬의 공간적 범위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 않았지만, 로컬푸드의 개념에는 공간적 측면과 사회적 측면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의 경우에서는 로컬푸드의 시장을 어떻게 다양화할 것인가에 대해, 그리고 로컬푸드를 이용해 어떻게 지역을 재구조화할 것인가에 대한 연구로 확대되고 있다.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에서는 로컬푸드 연구가 매우 제한적으로 이루어져 왔고, 이론적·개념적 규정이 모호하며, 실증적 분석 연구가 부족하다는 한계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로컬푸드 정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무엇이 원칙이 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혼선이 발생하고 있다. 선행 연구에서도 로컬푸드를 지역산 먹거리, 향토음식, 친환경 유기농 먹거리 등 다양하게 인식하고 있다(현혜경, 2010; 정인경 등, 2012). 이런 측면에서 볼 때, 과연 로컬푸드의 개념적 구성요소가 무엇인지를 명확히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이를 위해서 로컬푸드의 원칙을 설정하고, 이들 원칙이 얼마나 준수되고 있는가에 대한 실증연구가 필요하다.

3. 분석틀과 자료수집

1) 분석틀의 설정

본 연구에서는 로컬푸드의 개념적 구성요소를 바탕으로 로컬푸드의 원칙을 도출하고, 이 원칙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고(인식도) 있는지, 그리고 이들 원칙을 얼마나 잘 준수하고(준수도) 있는지

를 규명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로컬푸드의 개념적 구성요소를 바탕으로 ① 지역생산·지역소비, ② 이동거리 축소, ③ 유통단계 축소, ④ 친환경성, ⑤ 신뢰관계의 5가지 원칙을 도출하였다. 이들 5가지 원칙은 기존 선행연구에서 로컬푸드의 개념정의를 위해서 공통적으로 사용된 요소이다. 한편 이론적 논의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들 5가지 원칙 중에서 지역생산·지역소비, 이동거리 축소는 로컬푸드의 공간적 측면을, 그리고 유통단계 축소, 친환경성, 신뢰관계는 로컬푸드의 사회적 측면을 반영하는 구성요소로 재분류할 수 있다.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본 연구에서는 로컬푸드의 원칙으로 설정한 5가지 원칙이 각각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한 인식도와 이들 원칙이 얼마나 준수되고 있는가를 로컬푸드 종사자와 관련전문가로 구분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그리고 이들 5가지 원칙의 인식도와 준수도의 차이가 있는가를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 로컬푸드의 인식도와 준수도는 t-test를 통해서, 그리고 인식도와 준수도의 차이분석은 paired t-test를 통해 수행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로컬푸드의 인식도와 준수도, 그리고 인식도와 준수도의 차이를 산출한 식은 <표 1>과 같다. 따라서 인식도와 준수도가 높을수록 큰 값을 가지게 될 것이고, 인식도가 준수도보다 높으면 ‘인식도-준수도 차이’는 양(+)의 값을, 반대인 경우는 (-)의 값을 가지게 될 것이다.

2) 조사방법

본 연구에서는 “충남 로컬푸드 활성화 방안(허

표 1. 분석틀의 설정

구 분	분석내용	분석방법	변수의 척도
인식도	$R_i = \frac{\sum_{j=1}^n R_{ij}}{n}$	t-test	5단계 리커트
준수도	$E_i = \frac{\sum_{j=1}^n E_{ij}}{n}$	t-test	5단계 리커트
인식도-준수도 차이	$D_i = \frac{\sum_{j=1}^n R_{ij}}{n} - \frac{\sum_{j=1}^n E_{ij}}{n}$	paired t-test	5단계 리커트

남혁 등, 2011)”의 설문조사 DB를 활용하였다. 설문대상은 로컬푸드 사업에 직접 종사하고 있는 종사자와 로컬푸드 관련 연구를 수행하는 전문가 두 집단이며, 설문조사는 2011년 9월 29일부터 2011년 10월 11일까지 E-mail 조사를 통해 수행되었다. 그리고 E-mail 설문조사의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해 연구자가 직접 해당 종사자와 전문가에게 전화를 하여 조사목적과 조사내용을 설명함으로써 설문조사의 유의성과 회수율을 제고하였다. 설문부수는 종사자와 전문가 각 그룹별로 80부씩 모두 160부를 배포하였으며, 이중 종사자 50부, 전문가 80부가 회수되었다. 회수된 130부 모두가 분석에 사용되었다. 한편 설문조사의 공간적 범위는 우리나라 전체를 대상으로 하였다.

그리고 설문조사 대상자 선정의 경우, 현재 우리나라 로컬푸드에 관한 제도적 장치가 없기 때문에 객관성을 담보하기가 힘들었다. 특히 로컬푸드 사업체 선정의 경우 로컬푸드 사업체인가 아닌가를 판단하기가 곤란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로컬푸드 사업체 선정의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1차적으로 기존 문헌에서 로컬푸드 업체로 소개된 목록을 확보하였고, 해당 사업체 중 스스로 로컬푸드 사업체임을 표방하는 곳을 선정하여 설문조사를 시행하였다. 한편 로컬푸드 전문가 집단의 선정은 로컬푸드 관련 연구경험이 있는 전문가와 현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전문가, 공무원, 그리고 이들의 인적네트워크를 활용한 전문가 추천을 통해 이루

어졌다.

3) 조사대상의 로컬푸드 이해

(1) 공간범위

조사대상자가 생각하는 로컬푸드는 로컬의 공간적 범위와 거리, 유통단계, 그리고 친환경의 3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다. 우선 로컬푸드의 공간적 범위에서 전체 응답자의 52.3%는 광역시도가 로컬푸드의 공간적 범위로 적절하다고 판단하고 있고, 그 다음으로 시·군이 29.7%로 나타났다. 이러한 인식구조는 종사자와 전문가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다($\chi^2=6.2195$, $prob=0.1833$). 따라서 로컬푸드의 공간적 범위는 좁게는 시·군, 그리고 넓게는 광역시도로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제주도를 사례로 한 현해경(2010)의 연구에서 로컬의 공간적 범위를 제주도 전체로 설정한 것과 일치한다.

한편 로컬푸드의 이동거리에 대해서는 평균적으로 110.34km 이내로 축소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나타났다. 이는 로컬푸드의 공간적 범위를 최대 광역시도로 설정해야 한다는 결과와 일치하는 것이다. 한편 종사자와 전문가로 구분해 보면, 종사자는 109.56km 이내로, 그리고 전문가는 110.82km 이내가 적절하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양 집단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t_{값}=0.06$, $prob=0.9494$). 따라서 종사자와

표 2. 로컬푸드의 공간적 범위

(단위: 명, %)

구분	전체	읍·면	시·군	광역시도	국내	기타
전체	128 (100.0)	1 (0.8)	38 (29.7)	67 (52.3)	17 (13.3)	5 (3.9)
종사자	49 (100.0)	1 (2.0)	15 (30.6)	22 (44.9)	10 (20.4)	1 (2.0)
전문가	79 (100.0)	0 (0.0)	23 (29.1)	45 (57.0)	7 (8.9)	4 (5.1)

주: $\chi^2=6.2195$, $df=4$, $prob=0.1833$

표 3. 로컬푸드의 공간적 거리

(단위: km)

구분	전체 (N=130)	종사자 (N=50)	전문가 (N=80)	t값	prob
이동거리 축소	110.34	109.56	110.82	0.06	0.9494

전문가 모두 약 110km 이내가 로컬푸드의 이동거리로 적절하다고 인식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도서지역을 제외한 16개 광역시도의 동서간, 그리고 남북간 거리가 100km 안팎임을 감안할 때, 로컬푸드의 최대 이동거리로 조사된 110km가 갖는 의미는 크다고 하겠다. 따라서 로컬푸드에서 공간적 범위와 거리는 우리나라의 광역시도로 설정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2) 유통단계

유통단계적 측면에서 볼 때, 로컬푸드는 1단계 거래의 짧은 유통구조를 가져야 한다는 응답이 66.2%로 나타났다. 그리고 2단계 거래는 18.5%이고, 직거래는 6.2%에 불과하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로컬푸드는 1단계 정도의 유통구조에 의해서 공급되는 먹거리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로컬푸드의 유통구조에 대해서는 종사자와 전문가 간의 의견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chi^2=16.0847$, $prob=0.0011$). 즉 종사자의 경우는 1단계 정도의 유통구조여야 한다고 생각하는 반면, 전문가의 경우는 2단계의 유통구조도 로컬푸드에 포함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2단계 이상의 유통구조를 로컬푸드로 보는 견해는 매우 소수에 불과하기 때문에 로컬푸드는 2단계 이내의 비교적 짧은 유통구조에 의해서 공급되는 먹거리로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인식은 미국을 비롯한 대부분의 외국에서 로컬푸드를 직거래 혹은 가급적 짧은 유통구조를 통해 소비자에게 먹거리가 공급되는 것으로 인식하는 것과 동일한 것으로 평가된다.

(3) 친환경성

로컬푸드의 친환경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53.9%가 친환경 인증이 필요하지 않지만, 친환경을 지향해야 한다고 응답하고 있다. 한편 반드시 친환경 인증이어야 한다는 응답은 불과 15.4%이고, 반대로 친환경 인증 여부는 중요하지 않다고 응답한 경우는 1.5%이다. 이를 종합해 볼 때, 로컬푸드는 반드시 친환경 인증을 받아야 하지는 않지만, 생산자와 소비자의 신뢰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보다 안전한 먹거리로 생산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 이는 종사자와 전문가에서 동일한 인식구조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chi^2=6.1598$, $prob=0.1041$).

표 4. 로컬푸드의 유통단계

(단위: 명, %)

구 분	전체	직거래	1단계 거래	2단계 거래	기타
전체	130 (100.0)	8 (6.2)	86 (66.2)	24 (18.5)	12 (9.2)
종사자	50 (100.0)	8 (16.0)	33 (66.0)	7 (14.0)	2 (4.0)
전문가	80 (100.0)	0 (0.0)	53 (66.3)	17 (21.3)	10 (12.5)

주: $\chi^2=16.0847$, $df=3$, $prob=0.0011$

표 5. 로컬푸드의 친환경 인증 필요성

(단위: 명, %)

구 분	계	친환경인증	인증불필요/ 친환경지향	지역인증	친환경인증여부 중요치 않음
전체	130 (100.0)	20 (15.4)	70 (53.9)	38 (29.2)	2 (1.5)
종사자	50 (100.0)	8 (16.0)	30 (60.0)	10 (20.0)	2 (4.0)
전문가	80 (100.0)	12 (15.0)	40 (50.0)	28 (35.0)	0 (0.0)

주: $\chi^2=6.1598$, $df=3$, $prob=0.1041$

로컬푸드 종사자와 전문가가 생각하는 로컬푸드를 공간범위, 유통단계, 친환경성의 3가지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조사결과 우리나라에서 로컬푸드는 해당 광역시도에서 공급·소비되고(공간범위), 최대 2단계 이하의 짧은 유통구조를 통해서 공급되며(유통단계), 보다 안정적인 방식으로 생산되는 먹거리(친환경성)로 이해된다고 할 수 있다.

4. 실증분석

1) 로컬푸드의 인식도

본 연구에서는 로컬푸드의 개념적 구성요소를 지역생산·지역소비, 이동거리 축소, 유통단계 축소, 친환경성, 그리고 신뢰관계로 구분하였다. 이들 5가지 개념적 구성요소의 중요도를 살펴보면, 신뢰관계가 4.66으로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지역생산·지역소비(4.43), 유통단계 축소(4.40), 이동거리 축소(4.26), 그리고 친환경성(4.22)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주체별로 구분해 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종사자는 로컬푸드 원칙 중에서 신뢰관계(4.60)가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있고, 그 다음으로 유통단계 축소(4.39), 지역생산·지역소비(4.27), 이동거리 축소(4.27), 친환경성(4.24)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편 전문가의 경우에는 신뢰관계(4.70)가 가장 중요하게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지역생산·지역소비(4.53), 유통단계 축소(4.41), 이동거리 축소(4.26), 친환경성(4.24)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종사자와 전문가간의 로컬푸드 인식에

대한 통계적 차이가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로컬푸드에 대한 종사자와 전문가의 인식구조가 동일하다고 하겠다.

이상을 종합해 볼 때, 로컬푸드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은 생산자와 소비자의 신뢰관계라고 할 수 있고, 반대로 친환경성은 로컬푸드 원칙에서 상대적으로 중요도가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 친환경성에 대한 인식도가 낮은 것은 친환경 먹거리에 대한 중요도가 낮기 때문이라기보다 신뢰관계가 형성된 로컬푸드에서 친환경이나 아니냐를 인증하는 문제가 중요하지 않다는 의미로 이해된다. 즉 로컬푸드는 친환경적인 먹거리 보다는 오히려 생산자와 소비자가 신뢰를 형성하는 먹거리로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고, 이를 위해서 지역생산·지역소비, 유통단계와 이동거리의 축소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로컬푸드의 개념을 공간적 측면과 사회적 측면으로 구분해 볼 때, 공간적 측면(4.34)과 사회적 측면(4.43)이 모두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고, 이는 종사자와 전문가 양 집단에서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로컬푸드의 개념에서는 공간적 측면과 사회적 측면이 모두 중요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2) 로컬푸드의 준수도

다음으로 로컬푸드의 준수도를 살펴보면, 신뢰관계가 3.75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유통단계의 축소(3.72), 친환경성(3.57), 지역생산·

표 6. 로컬푸드의 인식도

구 분		전체 (N=130)	종사자 (N=50)	전문가 (N=80)	t값	prob
공간적 측면	소계*	4.34	4.27	4.39	0.97	0.3373
	지역생산·지역소비*	4.43	4.27	4.53	1.64	0.1054
	이동거리 축소	4.26	4.27	4.26	-0.02	0.9848
사회적 측면	소계	4.43	4.41	4.44	0.26	0.7943
	유통단계 축소	4.40	4.39	4.41	0.19	0.8535
	친환경성	4.22	4.24	4.21	-0.23	0.8159
	신뢰관계*	4.66	4.60	4.70	0.69	0.4935

주: 인식도는 5단계 리커트로 측정됨.

*는 등분산가설이 기각된 경우임.

지역소비(3.44), 이동거리 축소(3.30)로 나타났다. 이를 주체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종사자는 신뢰관계(4.32)가 가장 잘 지켜지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고, 그 다음으로 유통단계의 축소(4.22), 친환경성(4.10), 지역생산·지역소비(3.68), 이동거리 축소(3.44)로 나타났다. 따라서 종사자는 로컬푸드의 원칙이 기본적으로 잘 지켜지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반면에 전문가는 로컬푸드의 원칙 중에서 유통단계 축소(3.41)가 가장 잘 지켜지고 있고, 그 다음으로 신뢰관계(3.39), 지역생산·지역소비(3.29), 친환경성(3.24), 이동거리 축소(3.21)가 잘 준수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따라서 전반적으로 전문가는 종사자에 비해서 로컬푸드 원칙이 잘 준수되지 않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실제 종사자와 전문가의 로컬푸드 준수에 대한 t-test 결과 5가지 원칙에 있어서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즉 종사자는 로컬푸드의 원칙이 잘 지켜지고 있다고 판단하는 반면, 전문가는 상대적으로 로컬푸드의 원칙이 잘 안 지켜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이상을 종합해 볼 때, 로컬푸드의 5가지 원칙 중에서 신뢰관계와 유통단계 축소는 잘 지켜지는 반면, 상대적으로 친환경성과 이동거리 축소는 잘 준수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한편 로컬푸드의 공간적 측면과 사회적 측면으로 구분해 볼 때, 사회적 측면(3.68)의 원칙은 비교적 잘 지켜지는 반면, 공간적 측면(3.37)의 특성은 잘 준수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문가는 종사자에 비해서 공간적 측면과 사회적 측면이 모두 잘 준

수되지 않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3) 로컬푸드 인식도와 준수도 차이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 로컬푸드 원칙에 대한 인식도와 실제 준수도 간의 차이가 얼마나 있는가를 분석해 보고자 한다. 우선 5가지 원칙 모두에 있어서 인식도에 비해 준수도가 모두 낮은 것으로 나타났고,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는 로컬푸드에 대한 인식에 비해서 실제 준수도가 낮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인식도와 준수도의 차이가 가장 큰 것은 지역생산·지역소비(1.02)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이동거리 축소(0.96), 신뢰관계(0.92), 유통단계 축소(0.67), 친환경성(0.64)으로 나타났다. 로컬푸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신뢰관계와 지역생산·지역소비라고 할 때, 이 2가지의 원칙이 역설적으로 가장 잘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대로 로컬푸드에서 상대적으로 중요하지 않은 원칙이라 할 수 있는 친환경성은 인식도와 준수도의 차이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

이를 주체별로 살펴보면, 종사자와 전문가간의 인식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우선 종사자의 경우 유통단계 축소와 친환경성, 신뢰관계에 있어서 인식도와 준수도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 다만 이동거리 축소(0.82)와 지역생산·지역소비(0.60)는 인식에 비해

표 7. 로컬푸드의 준수도

구 분		전체 (N=130)	종사자 (N=50)	전문가 (N=80)	t값	prob
공간적 측면	소계*	3.37	3.56	3.26	-2.02	0.0465
	지역생산·지역소비*	3.44	3.68	3.29	-2.31	0.0232
	이동거리 축소*	3.30	3.44	3.21	-1.32	0.1887
사회적 측면	소계	3.68	4.21	3.35	-7.81	0.0001
	유통단계 축소	3.72	4.22	3.41	-5.40	0.0001
	친환경성	3.57	4.10	3.24	-5.50	0.0001
	신뢰관계*	3.75	4.32	3.39	-7.71	0.0001

주: 준수도는 5단계 리커트로 측정됨.

*는 등분산가설이 기각된 경우임.

표 8. 로컬푸드의 인식도와 준수도 차이분석(paired t-test)

구 분		평균값	t값	prob	
전체 (N=130)	공간적 측면	소계	0.97	11.97	0.0001
		지역생산·지역소비	1.02	10.71	0.0001
		이동거리 축소	0.96	10.64	0.0001
	사회적 측면	소계	0.75	8.55	0.0001
		유통단계 축소	0.67	6.76	0.0001
		친환경성	0.64	6.14	0.0001
	신뢰관계	0.92	8.93	0.0001	
종사자 (N=50)	공간적 측면	소계	0.70	4.83	0.0001
		지역생산·지역소비	0.60	3.44	0.0012
		이동거리 축소	0.82	5.32	0.0001
	사회적 측면	소계	0.20	1.56	0.1250
		유통단계 축소	0.14	0.88	0.3833
		친환경성	0.10	0.65	0.5207
	신뢰관계	0.27	1.73	0.0907	
전문가 (N=80)	공간적 측면	소계	1.14	12.36	0.0001
		지역생산·지역소비	1.27	12.68	0.0001
		이동거리 축소	1.05	9.46	0.0001
	사회적 측면	소계	1.10	10.83	0.0001
		유통단계 축소	1.00	8.89	0.0001
		친환경성	0.98	7.75	0.0001
	신뢰관계	1.31	11.30	0.0001	

서 준수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종사자는 로컬푸드의 5가지 원칙 중에서 친환경성, 유통단계 축소, 신뢰관계는 잘 지켜지고 있는 반면, 이동거리 축소와 지역생산·지역소비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평가한다고 하겠다.

한편 전문가는 로컬푸드의 5가지 원칙 모두에서 인식도와 준수도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로컬푸드의 인식도에 비해서 준수도가 낮은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전문가의 경우, 신뢰관계(1.31)와 지역생산·지역소비(1.27)에서 인식도와 준수도간의 차이가 가장 크게 나타나고 있고, 그 다음으로 이동거리 축소(1.05), 유통단계 축소(1.00), 친환경성(0.98)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상을 종합해 볼 때, 종사자는 로컬푸드의 5가지 원칙 중에서 친환경성, 유통단계 축소, 신뢰관

계의 3가지 원칙은 잘 지켜지고 있다는 판단하는 반면, 전문가는 5가지 원칙 모두 인식도에 비해서 준수도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그리고 로컬푸드를 공간적 측면과 사회적 측면으로 구분해 볼 때, 사회적 측면은 인식도와 준수도의 차이가 상대적으로 작은 반면, 공간적 측면은 인식도와 준수도의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우리나라에서 로컬푸드의 공간적 측면이 상대적으로 잘 지켜지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즉 로컬푸드에서는 공간적 측면과 사회적 측면이 모두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현실에서는 사회적 측면만이 강조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농식품 분야의 산업화와 근대화 과정에서 고착되어버린 우리나라의 중앙집중적 먹거리 유통구조가 최근의 로컬푸드 열풍 정도로는 쉽게 바뀌지 않으며, 이러한 구조적 제약으로 인해 답론적으로는 로컬푸

드를 끌어들이어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려고 하고 있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로컬푸드의 실천이 그리 녹록하지 않음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5. 결론

본 연구는 최근 사회적으로 큰 흐름으로 자리잡고 있는 로컬푸드에 대한 인식도와 준수도를 실증적으로 규명하는데 그 목적을 두었다. 본 연구는 로컬푸드라는 단어가 갖는 다원성으로 인해 로컬푸드에 대한 개념이 불명확하고, 이로 인해 로컬푸드 정책의 방향이 혼돈스러운 현실적 문제인식에서 시작된 것이다. 이를 위해서 본 연구에서는 로컬푸드 종사자와 전문가를 대상으로 로컬푸드의 개념적 구성요소, 즉 지역생산·지역소비, 이동거리 축소, 유통단계 축소, 친환경성, 신뢰관계 등에 대한 중요도의 인식도와 준수도를 설문조사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로컬푸드 인식도에서는 신뢰관계, 지역생산·지역소비가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났고, 상대적으로 친환경성의 중요도는 낮게 나타났다. 이는 종사자와 전문가에서 통계적 차이를 나타내지 않는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로컬푸드는 단순히 지역내에서 생산되는 먹거리 혹은 친환경적인 먹거리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로컬푸드 개념에서는 공간적 측면과 사회적 측면의 구성요소가 모두 중요하다

둘째, 로컬푸드 준수도에서는 신뢰관계와 유통단계의 축소는 비교적 잘 지켜지는 반면, 친환경성과 이동거리는 상대적으로 잘 지켜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준수도의 경우 종사자와 전문가의 인식차이는 이동거리 축소에서만 나타나지 않고, 그 외 4개 요소에는 통계적 차이가 나타났다. 즉 지역생산·지역소비, 유통단계 축소, 신뢰관계, 친환경성의 경우 종사자가 전문가에 비해서 더 잘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셋째, 로컬푸드의 인식도와 준수도의 차이를 살펴보면, 친환경성, 신뢰관계, 그리고 유통단계 축소 등의 사회적 측면은 인식도와 준수도의 차이가 크지 않은 반면, 공간적 측면의 이동거리 축소와 지역생산·지역소비는 인식도와 준수도의 차이가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종사자와

전문가에서도 동일한 형태를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 로컬푸드는 사회적 측면이 잘 준수되고 있는 반면, 공간적 측면은 상대적으로 잘 준수되지 못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상을 종합해 볼 때, 우리나라도 다른 외국과 동일하게 로컬푸드의 공간적 측면과 사회적 측면이 모두 중요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로컬푸드의 사회적 측면이 보다 강조되고 있고, 공간적 측면은 상대적으로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결과 로컬푸드의 사회적 측면은 비교적 잘 준수되는 반면, 공간적 측면은 상대적으로 준수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로컬푸드의 인식도와 준수도의 차이분석에서도 공간적 측면은 큰 차이를 보이는 반면, 사회적 측면은 인식도와 준수도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에서 로컬푸드는 글로벌 푸드에 대한 상대적 개념으로 인식되고 보급되었다. 안전하지 못한 글로벌 푸드에 대한 대안으로 인식되는 과정에서 안전성을 중심으로 친환경적이라는 측면에서 어필된 경향이 강하게 나타났다. 그러나 로컬푸드의 개념에는 사회적 측면뿐만 아니라 공간적 측면도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 로컬푸드가 보다 성공적으로 추진되고 정착되기 위해서는 로컬푸드(정책)에서 공간적 측면을 기반으로 하여 사회적 측면이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

최근 일부 광역자치단체에서 지역생산·지역소비의 연계구조를 만들고자 하는 정책적 노력은 로컬푸드의 공간적 측면을 중시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큰 의의가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리고 일부 자치단체들과 민간부문에서 제안하고 있는 로컬푸드 인증제도가 현실화될 경우, 본 논문에서 제기한 문제의식이 사회적으로 좀 더 고려될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로컬푸드 인증제에서는 생산자와 생산지의 지역성이라는 공간적 측면이 강조될 것이고, 그에 따라 본 논문에서 지적한 로컬푸드의 준수도가 상승할 것이기 때문이다. 향후 로컬푸드가 보다 보편화되고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로컬푸드를 지역에서 생산되고 소비되며(공간적 측면), 생산자와 소비자의 신뢰관계 하에서 안전하고 안심하며 소비할 수 있는 먹거리(사회적 측면)로 접근해야 할 것이다.

끝으로 본 연구는 설문조사에 기반하여 로컬푸드 원칙의 인식구조와 준수실태를 분석하였기 때문에 로컬푸드의 관련 주체들의 내면적 의견과 가치를 반영하지 못하였다는 한계점이 있다. 그리고 조사대상을 선정함에 있어서 해당 조사대상이 로컬푸드 관련대상자가 맞는가를 검증하기 위한 객관적 기준이 부족하였다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조사 대상의 내면적 의견과 가치의 반영, 조사대상 선정의 객관성 확보에 대한 부분은 향후 연구에서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문헌

- 김원동, 2008, 미국 포틀랜드지역의 농민시장 운영 실태에 관한 사례 연구: 저소득층의 시장 이용 촉진을 위한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농촌사회학회지, 18(2), 37-86.
- 김자경, 2010, 로컬푸드시스템 구축을 위한 제주도민의 식생활 현황과 먹을거리 의식에 관한 연구, 농촌사회, 20(2), 117-161.
- 김종덕, 2007, 지역식량체계 농업 회생방안과 과제, 농촌사회, 17(1), 5-32.
- 김종덕, 2008, 우리나라 로컬푸드 정책의 방향, 지역사회학, 9(2), 85-113.
- 김종덕, 2009, 먹을거리 위기와 로컬 푸드 세계 식량 체계에서 지역 식량 체계로: 세계 식량 체계에서 지역 식량 체계로, 이후.
- 김철규·윤병선·이철·이해진·김선업·김홍주·허남혁 등(편역), 2013, 먹거리와 농업의 사회학, 도서출판 따비(Carolan, M., 2012, *The Sociology of Food and Agriculture*, London: Routledge).
- 김철규, 2011, 한국 로컬푸드 운동의 현황과 과제: 농민장터와 CSA를 중심으로, 한국사회, 12(1), 111-133.
- 김현철·정인경·민상기, 2009, 로컬푸드(local food) 도입 및 활용을 위한 학교급식 지원체계 탐색적 사례 분석, 관광학연구, 33(5), 99-121.
- 노윤배, 2010, 지역순환농업을 모색하는 원주푸드: 원주생협 활동사례를 중심으로, 한국농업교육학회 정기학술대회 자료집, 241-254.
- 농촌진흥청(김행란·김양숙), 2010, 농진청의 로컬푸드 활성화 계획, 지역사회생활개선학회 발표문.
- 박덕병, 2005, 미국의 Local Food System과 공동체 지원농업(CSA)의 현황과 전망: 미네소타주 무어헤드시의 올드 트레일 마켓(Old Trail Market)의 사례 연구, 농촌사회, 15(1), 133-173.
- 장현욱, 2013, 소비자 특성요인에 따른 로컬푸드 구매행동 분석, 전북대학교 일반대학원 경영학과 석사학위논문.
- 정은미, 2011,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로컬푸드 시스템 구축 방안, 농정연구, 38, 65-94.
- 정인경·김영·김현철, 2012, 로컬푸드 소비에 대한 인식과 만족: 로컬푸드 소비 활성화 및 비활성화 지역 간 차이를 중심으로, 외식경영학회, 15(3), 197-218.
- 허남혁·이관률·유학열·강마야·조은정·송주연·장경호·김오열·박준식, 2011, 충남 로컬푸드 활성화 방안, 전략연구 2011-14, 충남발전연구원.
- 허남혁, 2011, 한국의 로컬푸드 운동 및 제도화의 현황과 과제, 농정연구센터 연례심포지엄시리즈 17(한국 농업·농촌 발전의 대안 모색), 10-46.
- 현혜경, 2009, 제주지역 로컬푸드 운동의 현황과 전망, 탐라연구, 35, 107-140.
- 현혜경, 2010, 제주지역 생협조합원들의 로컬푸드에 대한 인식과 실천, 탐라연구, 36, 261-299.
- 홍경완·김지영·김양숙, 2009, 로컬푸드의 개념적 이해 연구, 대한경영학회지, 22(3), 1629-1649.
- 홍경완·김현철·정인경, 2010, 로컬푸드에 대한 전문가 인식 조사,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11(12), 4742-4751.
- Baker, K.E., 2011, Understanding the Local Food Phenomenon: Academic Discourse, Analytical Concepts, and an Investigation of Local Food Initiatives, *Exploration in Anthropology*, 11(1), 3-24.
- Born, B. and Purcell, M., 2006, Avoiding the local trap: Scale and food systems in planning research, *Journal of Planning Education and Research*, 26(2), 195-207.
- Brunori, G., 2007, Local food and alternative food networks: a communication perspective, From Local Food to Localised Food(S2), *Anthropology of Food*(<http://aof.revues.org/> 430).

- CFIA(Canadian Food Inspection Agency), 2013, Local food claims (<http://www.inspection.gc.ca/food/labelling/other-requirements/claims-and-statements/local-food-claims/eng/1368135927256/1368136146333>).
- EU Committee of the Regions, 2011, *Opinion of the Committee of the Regions on 'Local food systems' (outlook opinion)*, 88TH PLENARY SESSION(2011.1.27-28).
- Feagan, R., 2007, The place of food: mapping out the 'local' in local food systems, *Progress in Human Geography*, 31(1), 23-42.
- Holt, G. and Amilien, V., 2007, Introduction: from local food to localized food, From Local Food to Localised Food(S2), *Anthropology of Food*(<http://aof.revues.org/405>).
- King, R., Hand, S., DiGiancomo, G., Clancy, K., Gómez, M., Hardesty, S., Lev, L. and McLaughlin, E., 2010, *Comparing the Structure, Size, and Performance of Local and Mainstream Food Supply Chains*, ERR-99, USDA.
- Low, S.A. and Vogel, S., 2011, *Direct and Intermediated Marketing of Local Foods in the United States*, Economic Research Report No. 128, Washington, DC: USDA Economic Research Service.
- Marsden, T., Bank, J. and Bristow, G., 2000, Food Supply Chain Approaches: Exploring their Role in Rural Development, *Sociologia Ruralis*, 40, 424-438.
- Martinez, S., Hand, M., Da Pra, M., Pollack, S., Ralston, K., Smith, T., Vogel, S., Clark, S., Lohr, L. Low, S. and Newman, C., 2010, *Local Food System: Concepts, Impacts, and Issues*, Economic Research Report No. 97, Washington, DC: USDA Economic Research Service.
- O'Hara, J.K., 2011, *Market Forces: creating jobs through public investment in local and regional food systems*, MA: Union of Concerned Scientists.
- Trobe, H.L., 2002, *Local food, future directions*, November 2002, Friends of the Earth.
- 교신 : 허남혁, 대구대학교 지리교육과 박사수료, hurmh@naver.com
- Correspondence : Nam-Hyuk Hur, Ph.D. Candidate in Department of Geography Education, Daegu University, hurmh@naver.com
- (접수: 2013.08.02, 수정: 2013.11.18, 채택: 2013.11.21)